



2008년 9월 5일(금)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, 이상욱 사무관(02-2110-5414)
석탄자원과 염동관 과장, 김춘식 사무관(02-2110-5494)
전기소비자보호과 이상훈 과장, 김경일 사무관(02-2110-5547)

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에 주력!

- 지식경제부, 생활공감정책 3대과제 발표 -

- 최근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상승, 고용부진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청와대는 2008.9.5(수) 10:30~12:00, 대통령 주재 「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 완화를 위한 “작지만 가치 있는” 생활공감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
- 청와대는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경기회복의 온기가 시민·저소득 계층까지 파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공감정책을 국정 의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였음
-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, 저소득층 심야 전력 요금 할인, 차상위계층까지 연탄 무료지원 확대 등 에너지복지 분야에서 3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임

① 에너지빈곤층의 겨울난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

- 07년부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교체 및 단열·창호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부담완화를 위해 ‘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’을 대폭 확대할 예정

* 07년 100억원 → '08년 285억원(추경 135억원 포함)

- 아울러, 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포인트 카드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**혹한기 긴급난방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약 2~3개월분의 난방유, LPG 등 현물을 제공할 예정임**

* ('07년) 총 348가구(6,337만원)→('08계획) 2,500여 가구(5억원)

* '08년 재원(5억원): LG그룹지정기탁금 2억5천만원, 에너지복지카드 포인트 기부금 46백만원, 롯데홈쇼핑 특별모금방송 수익금 기부 6천만원, 에너지 유관기관 등 연말성금 모금 1억5천만원

②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

- 정부는 저소득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용 전력 할인, 단전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'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
 - '08년 1월에는 심야전력 요금을 18%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심야전력요금 20%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음
- 또한,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7월부터는 심야전력요금 할인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심야전력 요금인상분 18%를 할인시행하고 있음

③ 저소득층 연탄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

- 오는 10월부터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가구까지 연탄 무료지원이 확대되며, 지원금액도 가격 인상분 7.7만원(가구, 년)으로 확대됨('07년 가구당 33,000원/년)
- *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4만가구, 차상위계층가구는 약 6만가구로 추정
- 아울러, 고지대·원거리 등 배달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연탄 배달을 위해 지경부·광해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배달서비스 Call-Center를 운영할 계획임